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효율적 운영방안을 위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보고¹⁾

울산대학교 아산의학도서관

박 정 희

서 론

1. 설문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한의도협)는 1968년 5개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이 의학정보의 경제적 유통을 목적으로 창설하였다. 창설 당시에는 의학 자료의 상호대차 서비스와 이를 위한 현장 사서들의 친목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21C에 들어서면서 창설 당시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정보 접속환경의 변화이다. 컴퓨터를 접하는 환경이 자유로워지면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의학정보 통합 검색이나 원문 입수를 의학도서관 현장 사서들에게 보다 전문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요구하는 현상이 도래하게 되었다.

또한 회원기관이 2007년 현재 180여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회원기관의 성격도 의학도서관에서 병원도서관, 생명과학 관련 연구소 등 다양해졌다.

이러한 변화 즉 한의도협에 가입한 다양한 성격을 가진 기관의 증가와 정보 유통 형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동하면서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의도협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설문의 목적

한의도협은 의학정보 관리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과 회원 상호간의 협력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주력 사업으로 하였고 이 사업은 회원들 사이에 한의도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근간이 되었다.

정보환경의 변화로 정보 접근점이 자유로워지고, 따라서 이용자들은 정보의 접근과 입수에 대해 평준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예산의 압박을 받는 사서들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손쉬운 접근성은 출판사로부터 전자정보의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서들은 buyer power를 형성하려는 움직임 보였다. 그리고 전자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정보 신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일환으로 다양한 전문 DB들과 근거중심에 의한 EBM DB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은 이용자들이 사서들에게 더욱 전문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전문성을 요하는 보다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의도협은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현재 사업은 첫째, 의학도서관 회원 상호간 협력체제, 둘째, 의학정보 관리 및 상호대차 시

1) 2007년도에 한의도협 40주년 기념으로 한의도협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위하여 한의도협 기획위원회에서 실시한 설문으로서 당시 한의도협 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설문 결과를 보고함.

스텝 구축, 셋째, 사서들의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의학사서제도, 넷째, 실무 workshop, MeSH, 도서관 경영 등 현장 사서들에게 실무적 도움을 주는 교육, 다섯째, 의학 정보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 제도, 여섯째, 국제적 정보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외국 기관과의 교류 등을 들 수 있다.

이 설문문의 목적은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한의도협 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생각과 향후 회원들이 바라는 한의도협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보 형태의 변화에 따른 한의도협의 미래의 방향과 회원 기관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문 방법 및 내용

1. 설문 방법

본 설문은 한의도협 기획위원회에서 시행하였는데 기획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7명의 위원이며, 2007년 8월, 10월 두 번의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설문문의 목적과 설문 내용의 검토가 있었고, 설문 시기와 설문 방법을 결정하였다.

설문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항목을 작성하여 리서치 중앙 사이트²⁾를 이용하여 이메일을 활용하여 웹으로 조사하였으며, 설문 시기는 2007년 11월 5일에서 11월 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한의도협 회원 기관 중 의학 관련 도서관에 현재 종사하는 회원들이며, 약 400여명 회원 중 138명이 설문에 응하였다.

설문 통계 방식은 빈도 분석³⁾으로 주로 백분율을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설문 항목 중 기타는

기관별 중요 순위를 나타내는 표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 설문 내용

설문 내용은 크게 한의도협 기능, 한의도협 행사, 의학사서제도, 의학정보 공동 구매, 상호대차 등 5가지 항목을 설정하였다.

우선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의도협이 그 기간동안 진행한 기능에 대한 역할 변화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능에 대해 설문하였고, 고유 기능과 더불어 매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 정기총회, 학술대회, study meeting, workshop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하였다. 2007년 첫 번째 실시한 의학사서제도에 대한 당위성이나 회원들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목을 설정하였고, 다변화하는 정보 환경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출시되는 각종 의학정보를 경제적이며 안정성 있게 구입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관하여 설문하였다. 또한 한의도협 창설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상호대차 기능이 인터넷에서 진행되면서 회원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중점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 분석

설문 조사의 결과는 각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단 기관별 성격으로 구별하여 분석할 경우에 제약회사는 문헌을 의뢰하는 목적으로 가입한 특수한 성격을 갖고 있는 특별 회원임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 빈도분석이란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원자료(raw data)의 분포현황을 파악하여 변수들의 빈도, 중심경향치, 분포도 등 변수의 개략적 특성을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2) <http://www.research.joongang.com> 사이트는 논문, 레포트 작성 등 학술활동에 도움을 주고 설문조사에 필요한 온라인 설문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임.

1.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기능

설문은 138명이 응답하였는데, 표 1에서와 같이 기관 성격으로 구분하여 보면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63명(46%) 병원 63명(46%), 연구기관이 10명(7%) 그리고 제약회사가 2명(1%) 답하였다. 총회원수가 247명인 의학도서관보다 141명인 병원도서관이 회원수로 볼 때 2배 정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수가 비슷한은 병원이 한의도협의 역할에 관심이 많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관보다 작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한의도협의 기능에 기대치가 높음을 나타낸다.

근속연수는 1~5년 근무자가 41명(30%), 6~10년이 31명(22%), 11~15년이 31명(22%), 16~20년이 21명(15%), 21년 이상이 14명(10%)였다. 이를 10년 근무기간으로 구분하여 보면, 10년 이하 72명(52%), 10년 이상 66명(48%)의 근무기간 분포도를 볼 수 있다. 10년 기준에서는 장기 근무자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5년 기간으로 세분화하면 5년 이하 근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1/3을 차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신규 근무자가 전체 근무자에 비해 많은 것은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남을 나타내며 이는 한의도협의 기능이 전자화 시대에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의 인구학적 분석을 토대로 각 한의도협의 기능을 설문하였다. 기능에 관한 항목을 현 한의도협 회원들의 현실에 맞추어 권익 보호, 상호대차 교류, 병원 표준화 심사 기준,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의학정보원의 공동 구매로 정하였다. 이 항목들은 의학 분야 도서관의 현장 사서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기능을 정리하여 설정하였다.

설문결과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창립 당시 주목적이었던 상호대차이며 58명(42%)이 1위로 답하였다. 그 다음은 교육이 30명(22%)이고, 의학사서의 권익 보호가 29명(21%), 병원표준화 심사가 9명(7%), 그리고 의학정보 공동 구매가 8명(6%)으로 답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중요순위가 기관별 성격에 따

표 1. 설문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소속 기관별	총기관(회원수)	명(%)	근속연수별	명(%)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54 (247)	63 (46%)	1~5년	41 (30%)
병원도서관	90 (141)	63 (46%)	6~10년	31 (22%)
연구소	16 (38)	10 (7%)	11~15년	31 (22%)
제약회사	9 (24)	2 (1%)	16~20년	21 (15%)
			20년 이상	14 (10%)

*기관별 총회원수는 2007년 10월 통계임.

표 2.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기능 기관별 중요 순위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상호대차 30명	상호대차 21명	상호대차 7명
2 위	교육 14명	사서권익보호 17명	교육 2명
3 위	사서권익보호 11명	교육 14명	사서권익보호 1명
4 위	공동구매 6명	병원표준화심사 9명	
5 위		공동구매 2명	

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호대차에 대한 기능을 중요시 하는 것은 각각의 기관들이 같으나 그 다음 2위의 관심도는 병원인 경우 사서권 보호이며, 의과대학과 연구기관은 교육이다. 이는 병원에서의 사서의 역할이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비해서 변화가 빠름을 알 수 있다. 교육은 전자 형태의 정보들이 방대하게 출시되면서 이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신뢰성있게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화된 DB의 출현과 더불어 대두된 의학도서관들의 기능이다. 회원들은 이러한 정보를 한의도협을 통해 획득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병원도서관은 병원표준화 심사를 위해 한의도협에 가입한다고 9명이 답하였다. 한의도협의 중요한 기능이 도서관 평가를 다루는 대한병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외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채널을 확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행사

한의도협은 매년 정구행사로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필요시 실무 workshop을 실시한다. 2006년~2007년 행사에 대한 참여도, 행사 참석 목적과 만족 여부를 설문하였다.

표 3에서와 같이, 행사 참여도는 2006, 2007년도 정기총회 참석자가 112명이며 학술대회 참석자가 124명으로 참여도가 학술대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2007년 참석자 평균치는 총회 참석자 56명(41%), 학술대회 참석자 62명(45%)이다. 2006년 2월 천안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 46명

(33%)이 참석하였고, 2007년 2월 서울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 66명(48%)이 참석하였다. 정기총회인 경우 개최 장소가 회원 수가 많은 서울과 가까울수록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학술대회는 2006년 10월 화순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58명(42%)이 참석하였고, 2007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학술대회는 66명(48%)이 참석하였다. 참석회원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기총회보다는 개최지로 인한 참석여부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사이에 workshop을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응답자 중 51명(37%)이 참석하였다. Workshop의 참여도를 볼 때, workshop을 정기총회나 학술대회 시 실시하는 것이 회원들의 시간이나 업무에 효율성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참여도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목적을 질문한 결과 의학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교육을 위한 것으로 전체 응답자중 92명(67%)으로 가장 높았고, 회원간의 친목 도모 10명(7%), 소속기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5명(4%), 의학사서자격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2명(1%)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와 같이, 기관별로 보면 1위는 모두 최신정보와 교육을 위해 참석한다고 하였으나, 2위는 기관별 성격상 차이가 있다. 기관별 성격상의 순위 차이는 그 기관의 수익성이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보다 병원이 민감하기 때문이며,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정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병원도서관이 인력이나 공간에 대해 다른 성격의 의학도서관보다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한의도협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전체 응답자 중 63명(46%)이 응답하였다. 설문 결과는 1인 근무 환경에 있기 때문 21명(15%),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10명

표 3.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행사 참여도

행 사 명	참가자수(%)	평균 참가자수(%)
2006년 2월 정기총회	46명(33%)	56명(41%)
2007년 2월 정기총회	66명(48%)	
2006년 10월 학술대회	58명(42%)	62명(45%)
2007년 10월 학술대회	66명(48%)	
2007년 7월 workshop	51명(37%)	

표 4.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행사 참석 목적 기관별 중요 순위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최신정보 및 교육 42명	최신정보 및 교육 44명	최신정보 및 교육 6명
2 위	친목 7명	기관내 사서 인식 5명	친목 1명
3 위		친목 2명 의학사서자격 취득 2명	

표 5.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행사 불참 요인 기관별 중요 순위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필요성이 없음 5명	1인 근무 15명	필요성이 없음 3명
2 위	1인 근무 4명 행사일정 중복 4명	행사일정 중복 3명 강제성이 없음 2명	1인 근무 2명 행사일정 중복 1명

(7%), 한의도협 행사와 소속기관의 행사 일정이 중복되므로 8명(6%), 강제성이 없어서 3명(2%)이다. 기타가 21명(15%)인데 그 내용은 순번제로 참석하기 때문에, 개최 장소가 너무 멀어서 등이다.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보다 병원이 한의도협의 교육이나 정보 교환에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위의 설문 결과로 알 수 있다. 불참 이유가 1인 근무이기 때문이라는 병원 도서관의 현장사서들을 위하여 한의도협은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workshop에 대해서는 125명(91%)이 응답하였는데 이는 2007년 workshop뿐만 아니라 정기총회나 학술대회 시 실시했던 workshop도 포함하여 응답한 결과이며, 만족이상이 57명(41%), 보통이 59명(43%), 불만족이 9명(7%)으로 나타났다. 불만족의 이유는 주제 내용의 전문성이 낮다 4명(3%), 주제에 대한 의견 교환 시간이 부족하다 1명(1%), 기타로는 실무를 위한 내용이 적다, 늘 같은 기관이 발표한다 등이다. 불만이 적기는 하지만 보통을 만족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workshop 내용을 더욱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3. 의학사서 자격제도

한의도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학사서제는 2007년에 시작되었다. 설문 응답자 중 46명(33%)가 의학사서이며, 기관별로 보면 대학 23명, 병원 21명, 연구기관 2명이다.

의학사서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 필요 이상 77명(55%), 보통 29명(21%), 그저 그렇다 20명(14%), 불필요 9명(7%)이다.

필요성 질문에서 필요 또는 보통인 이유에 대해 의학 분야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87명(63%), 향후 기관 내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11명(8%), 주제 전문가로서 학계의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7명(5%), 외부교육 참석 명분이 확실해지므로 2명(1%), 기타 의견으로 대외적 입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등으로 답하였다.

표 6에 보는 것과 같이, 각 기관별 도서관 회원들이 의학사서제도의 필요성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에 1순위로 답하였다. 2순위는 의과대학과 연구기관은 학계 활동 영역을 하기 위한 명분을 들었고, 병원은 경력 인정을 들었다. 병원에 근무하는

표 6. 의학사서 자격제도 필요성 기관별 중요 순위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전문성 인정 37명	전문성 인정 44명	전문성 인정 6명
2 위	학계 활동영역 4명	경력 인정 10명	학계 활동영역 2명
3 위	경력 인정 1명	교육 참석 명분 2명	
4 위		학계 활동 영역 1명	

표 7. 의학정보 컨소시엄 기관별 가입 현황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5~9 종 20명	없음 28명	없음 8명
2 위	4종 이하 15명	4종 이하 22명	4종 이하 1명
3 위	10종 이상 11명	5~9종 7명	
4 위	없음 11명	10종 이상 4명	

사서들은 근무 시 소속 기관의 도서관 업무에 대한 평가 등에 예민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현장 사서가 도서관 업무 외의 영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도구를 찾고 있으며 이 도구로 의학사서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을 볼 수 있다.

또 의학사서제의 필요성에서 그저 그렇다 또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8명(29%)이다. 그 이유는 현재 제도에서는 의학사서 자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15명(11%), 의학사서 취득 후 활용범위가 없으므로 6명(4%), 기관 내 의학사서자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6명(4%), 기타 시행규칙 규정의 객관화가 부족함 등으로 답했다.

이와 함께 의학사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에 총 30명이 답하였는데, 내용은 교육체계 보완 8명, 평가 방법, 심사제도 등 평가를 위한 제도 보완 10명, 사서 지위에 대한 향상 5명, 국가 인증 필요 5명, 그 외 의학사서 명칭 특화, 공청회 제의 등이다.

현대는 정보의 형태와 이용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다. 특히 변화의 흐름에 어떤 학문보다 빠른 의학은 주제전문사서로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의학사서제도를 시행하였다. 설문을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보면 의학사서제도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의도협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행규칙이나 점수 등을 보완하고 국가적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의학정보 컨소시엄

2007년 한의도협에서 주관하는 22개의 컨소시엄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10종 이상 가입 15명(11%), 5~9종 가입 27명(20%), 4종 이하 가입 38명(28%), 가입 없음이 47명(34%)이다. 이 설문 결과는 기관수가 아니라 회원수임을 감안할 때, 즉 10종 이상 가입에 15명이 응답하였으나 기관수가 15기관이 아니므로 컨소시엄 등 의학정보 예산을 설정하고 새로운 의학정보를 충분히 구입하는 기관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병원이나 연구기관은 컨소시엄 가입이 전혀 없음이 1위이다. 또 제고해

야 할 것은 의과대학이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았음에 응답한 경우가 11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문 결과로 볼 때, 한의도협 회원기관들의 예산에 대한 압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로부터는 더욱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현실에 당면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관에 필요한 DB가 없음에 11명(8%), 원내 이용자의 요구가 없어서 8명(6%), 컨소시엄 발표시기가 늦어서와 컨소시엄 홍보기관이 짧아서는 응답자가 없었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컨소시엄의 전문화와 다양화를 고려해서 진행하여야 함을 나타낸다. 기타로는 자관 예산문제로 13명(9%)이 응답하였는데, 컨소시엄의 가격 정책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한의도협 컨소시엄에서 보완해야 할 점은 의학주제만을 위한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부족하다 28명(20%), 작은 기관과 큰 기관의 FTE별 구독범위 대비 가격 차이가 없다 28명(20%), 아카이빙 보장이 어렵다 24명(17%), 가입 컨소시엄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다 23명(17%), 기타로 컨소시엄 가격 협상에 대한 영향력 보장을 답하였다. 이를 기관별 순위로 보면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병원도서관이 FTE별 구독범위 대비 가격 차이가 없음을 1순위로 설문하였고,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이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부족하함을 1순위로 지적하였다.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이 기타로 10명이 응답하

였는데 컨소시엄 가격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답하였다. 한의도협은 의학정보 컨소시엄 조건을 출판사나 에이전트들과 협상할 때 reasonable한 가격과 안정적인 access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5. 상호대차

한의도협은 의학관련 기관들과의 상호대차를 목적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능은 현재도 한의도협의 근간을 이루는 사업이며, 회원들과의 상호 교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초창기 상호대차는 각 기관의 소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잡지 종합목록을 발간하여 제공하고 제공받았다. 이후 소장자료의 디지털화로 상호대차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데이터 입력, 문헌 신청, 요금 정산 등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상호대차의 일련과정이 MEDLIS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되므로 간소화되어 편리해진 면이 있으나, 전자정보가 급격히 증가함으로 인한 회원들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을 하였다.

상호대차를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평균 소요일은 3~5일이 61명(44%), 6~7일이 56명(41%), 8~9일이 12명(9%), 10일 이상 3명(2%)으로 나타났다.

표 9에서와 같이, 기관별로 보았을 때 의과대학, 연구기관, 병원 순으로 문헌을 제공받는 기간이 신속했다. 이는 그 기관의 우편물 취급 상황에 따라 신속성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기관의 위치에 대한 접근성도 신속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표 8. 의학정보 컨소시엄 보완점 기관별 중요 순위

중요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위	전자저널 컨소시엄 부족 14명	FTE 대비 가격 20명	가입현황 정보공유 부족 5명
2위	아카이빙 보장 13명	전자저널 컨소시엄 부족 13명	전자저널 컨소시엄 부족 1명 아카이빙 보장 1명
3위	가입현황 정보공유 부족 8명	아카이빙 보장 8명	10명
4위	FTE 대비 가격 8명	가입현황 정보공유 부족 9명	

표 9. 상호대차 입수일 기관별 순위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위	3~5일	31명	6~7일	28명	3~5일	4명
2위	6~7일	26명	3~5일	26명	8~9일	2명
3위	8~9일	3명	8~9일	6명	6~7일	1명
4위	10일 이상		10일 이상	2명	10일 이상	1명

표 10. 빠른 우편제도 신설 기관별 순위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 위	예	35명(59%)	예	41명(67%)	예	7명(88%)
2 위	아니요	24명(41%)	아니요	20명(33%)	아니요	1명(12%)

표 11. 해외 상호대차 인지 및 이용 현황

	알고 있다	모른다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일본 상호대차	82명(59%)	45명(33%)	29명(21%)	84명(61%)
MEDLARS Center	112명(81%)	19명(14%)	89명(64%)	30명(22%)
British Library	78명(57%)	48명(35%)	22명(16%)	85명(62%)

또 상호대차 원문 입수일의 신속성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여, 요금이 오르더라도 입수일이 빠른 우편제도가 있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이에 83명(60%)가 예라고 답하였고 45명(33%)가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표 10에서와 같이, 기관별로 보면 연구기관, 병원, 의과대학 순으로 빠른 우편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는데, 표 9에서와 같이 우편 입수일이 늦은 병원, 연구기관 등의 도서관이 빠른 우편제도를 선호하였다.

현재 의학관련 기관 도서관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상호대차에 대해 질문하였다. 해외상호대차는 현재 한의도협에서 일본의학도서관협회와 협정을 맺고 시행하는 일본 상호대차, MEDLARS Center를 통한 상호대차, British Library (BL)를 통한 상호대차에 대해 설문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일본 상호대차는 인지도(82명)

에 비해 이용도(29명)가 낮았고, MEDLARS Center를 이용한 상호대차는 인지도(112명)와 이용율(89명)이 높았다. 그리고 BL 상호대차는 인지도(78명)와 이용률(22명)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한의도협 회원들이 BL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기는 하지만 현재 BL 상호대차를 이용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용수치임을 감안하여 BL 이용 요구도를 설문하였다. BL을 이용한 상호대차 서비스를 한의도협에서 대행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의 설문에서 87명(63%)이 예라고 답하였고, 33명(24%)이 아니라고 답하였다.

표 12에서와 같이, BL 상호대차 서비스를 한의도협에서 대행하기를 희망하였는데, 특히 병원도서관이 요구도가 높았다. 한의도협 상호대차 프로그램인 MEDLIS에서 해외 상호대차 신청이 이루어진다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되리라 본다.

표 12. BL 상호대차 구매대행서비스 기관별 조사 현황

순위	의과대학		병원		연구기관	
1위	예	38명	예	43명	예	6명
2위	아니요	17명	아니요	13명	아니요	3명

상호대차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국내 상호대차에 관하여 24명이 답하였고, 해외 상호대차에 관하여는 17명이 답하였다. 국내 상호대차는 입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우편제도 보완과 fax 요금 인하와 같은 상호대차 요금제도 재정립을 제시하였고, 해외 상호대차로는 해외상호대차를 MEDLIS에서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 BL 상호대차 대행, 소규모 도서관을 위한 MEDLARS Center의 상호대차 지원 등을 건의하였다.

위의 설문내용 외에 회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의도협에 대하여 건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행사: 한의도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총회, 학술대회, 실무 Workshop, Study등을 개최할 때 지방을 포함한 중소병원 도서실에 대해 배려하고 각종 행사에 대한 개최일자에 대한 설문도 건의했다.

2) 의학사서: 의학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제도 보완 및 강화, 그리고 의학 분야의 주제전문사서로서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건의하였다.

3) 교육: 소규모 모임을 활성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위한 모임을 확대하고 실무교육 위주의 행사를 자주 개최하고 MeSH, NLMC 등 사서들의 업무를 돕기 위한 시스템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기를 건의하였다.

4) 상호대차: MEDLIS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상호대차 요금 정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빠른 우편제도를 도입하며 해외 상호대차를 상호대차 프

로그램에서 신청하도록 건의하였다.

5) 의학정보 컨소시엄: 전문적이고 신뢰성있는 종류의 컨소시엄을 제시하며 회원 기관의 이용자수에 따른 합리적인 의학정보 가격을 출판사나 에이전트들과 협상하고 의학 분야의 정보가 출시하면 이에 대한 좀 더 빠른 정보를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고 찰

1968년 한의도협 창설시 기본이 되어 시행했던 기능들은 정보환경의 변화와 회원의 증가로 인하여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기능으로 변환되어야 함을 설문에서 보여주었다.

설문분석 결과를 보면,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의 회원과 함께 병원도서관의 회원이 증가함으로 한의도협은 한의도협 행사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행사일정과 주제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새롭게 출현하는 의학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의학정보 구입을 위한 컨소시엄을 확대하여 의학분야의 e-Journal, Web DB, e-Book 등에 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가격을 회원들에게 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더불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학사서제도를 정립하고 공인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평가방법과 심사제도를 보완하고 국가공인제도로서 인증을 받기 위하여 관련부처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근무 환경이나 업무 성격의 차이로 의과대학, 병원, 연구소로 기관별 분석을 한 결과 한의도협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관별로 한의도협의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도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다. 의과대학 의학도서관은 비교적 예산이나 인력에서 안정적이므로 서비스 개발이나 컨소시엄에 대한 구매력을 확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병원도서관은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과 사서의 지위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관별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증원하고 사무국을 좀 더 확장하여야 하며,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집행

부는 확고한 의지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회원들은 지적하였다.

한의도협은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우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규모의 환경에 적합한 e-learning system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상호대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호대차 프로그램을 보완하여야 하며, 의학분야의 각종 DB manual을 표준화하여 회원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한의도협은 회원들의 기관별 요구에 대해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내적으로는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외적으로는 관련부처인 대한병원협회, 문화관광체육부, 한국도서관협회 등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직원 보강이나 업무영역 확대 등 협의회 시스템을 정립, 확장하여야 한다.

부 록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이하 한의도협) 기획위원회에서는 ‘한의도협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한의도협의 각종 행사와 의학사서제도 그리고 공동구매 등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오니 한의도협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선생님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 ① 의과대학도서관 ② 병원도서실 ③ 연구기관 ④ 제약회사 ⑤ 개인회원

2. 선생님의 의학도서관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5년 ② 6~10년 ③ 11~15년 ④ 16~20년 ⑤ 20년 이상

3. 선생님은 현재 의학사서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4.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기능 중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을 순위별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기능	순위
의학사서의 권익보호	
상호대차 교류	
병원 표준화 심사기준	
교육을 통한 사서의 자질향상	
의학정보원의 공동구매	

기타 _____

5. 선생님은 아래 한의도협 행사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참석하신 행사에 모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참석
2006년 2월 정기총회	
2006년 10월 학술대회	
2007년 2월 정기총회	
2007년 7월 워크샵	
2007년 10월 학술대회	

6. 참석하셨다면 선생님이 한의도협 행사에 참석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의학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교육을 위해서
- ② 회원간의 친목을 위해서
- ③ 소속기관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 ④ 의학사서자격을 위한 점수를 취득하기 위하여
- ⑤ 기타 _____

7. 선생님이 한의도협 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없으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1인 근무 환경에 있기 때문에
- ② 특별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 ③ 한의도협 행사기간이 소속기관의 행사일정과 중복되므로
- ④ 강제성이 없어서
- ⑤ 기타 _____

8. 선생님은 워크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위의 질문에 4, 5번에 답하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제의 최신성이 떨어진다.
- ② 주제 내용의 전문성이 낮다.
- ③ 주제 발표 시간이 짧아서 이해하기 어렵다.
- ④ 주제에 대한 의견교환 시간이 부족하다.
- ⑤ 기타 _____

10. 선생님은 의학사서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그저 그렇다 ⑤ 필요하지 않다

11. 위의 질문에 1~3번을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의학분야에 대한 사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 ② 외부교육 참석 명분이 확실해지므로
- ③ 향후 기관내에 경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 ④ 주제 전문가로서 학계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예 : 외부기관 강의)
- ⑤ 기타 _____

12. 위의 질문에 4, 5번을 답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의학사서 자격 취득과정이 어려우므로
- ② 의학사서 자격 취득 후 활용범위가 없으므로
- ③ 현재 제도로 볼 때 의학사서 자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 ④ 기관 내 의학사서 자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 ⑤ 기타 _____

13. 현재 의학사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 의견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현재 2007년 한의도협 컨소시엄은 22종입니다.

22개 컨소시엄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e-Package	McGrawHill 1) Harrison's Online
CINAHLwith FullText	McGrawHill 2) AcessMedicine
ClinicalResource@Ovid	McGrawHill 3) Harrison' Practice
Cochrane Library	McGrawHill 4) Acess Sergery
Current Protocols Online	MD Consult
DynaMed	Medical 온라인 레퍼런스 시리즈(e-MRWs)
EBSCO host Medical Package	Medical MajorReference WorksPackage
eClinics	MEDLINE withFullText
Info Retriever	Thieme E-Book
LifeScienceBookSeries OnlinePackage	VJO (Video Journal of Orthopaedics)
LWW e-Book Collection	Wiley Medical Online Books

14. 선생님의 기관이 가입한 컨소시엄은 몇 종입니까?

- ① 10종 이상 ② 5~9종 ③ 4종 이하 ④ 없음

15. 컨소시엄에 가입하셨다면 이 컨소시엄에 가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에이전시의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② DB구독조건 및 활용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③ DB구입을 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④ 공신력있는 선정이 용이하므로
⑤ 기타 _____

16. 컨소시엄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관에 필요한 DB가 없으므로
② 컨소시엄 조건발표시기가 늦어서
③ 컨소시엄 홍보기간이 짧아서
④ 원내 이용자 요구가 없어서
⑤ 기타 _____

17. 현행 한의도협 컨소시엄에서 보완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아카이빙 보장이 어렵다
② 의학주제만을 위한 전자저널 컨소시엄이 부족하다
③ 작은 기관과 큰 기관의 FTE별 구독범위 대비 가격 차이가 없다
④ 가입 컨소시엄 현황에 대한 정보공유가 없다
⑤ 기타 _____

*FTE (Full Time Equivalent): 병원이나 기관내 근무하는 정규직원 수
(학생, 교수,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포함)

18. 상호대차 우편의 경우 평균 소요일은 며칠입니까? (신청에서 수령일까지)

- ① 3~5일 ② 6~7일 ③ 8~9일 ④ 10일 이상

19. 상호대차 원문 입수일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우편제도를 신설한다면 선생님은 요금이 오르더라도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를들면 특급우편)

- ① 예 ② 아니오

20. 해외 상호대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해당되는 난에 표기하여 주십시오.

구 분	내 용		내 용	
	알고 있다	모른다	이용한다	이용하지않는다
한의도협(일본)				
MEDLARS Center				
BL				

21. 한의도협에서 BL의 원문을 입수하기 위한 구매대행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에 KINS에서 제공하였음)

① 예 ② 아니오

22. 상호대차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1) 국내상호대차 ()
- 2) 해외상호대차 ()

* 끝으로 한의도협에 대하여 의견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